

## 학원강의 활용법

합격생이 전하는 수험생활

이름	민숙영				
전공 학과(부)	화학나노과학과	수험형태	재학	선택과목	유기화학
학습기간	( 20.3 ~ 21.8 )			시험응시횟수	1회
시험점수	민소 (61.33) 특허 (54) 상표 (49) 선택 (66.66)			총점 (164.33)	평균 (54.77)

### 1. 들어가며

대학교에서 주최했던 선배 변리사님의 강연을 통해 대학교 2학년부터 3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공계열 전문직인 '변리사'에 대해 처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전문직의 특성, 즉 이직이 자유롭고, 기업보다 조직문화가 덜한 점, 사회적 지위, 연봉 등을 고려해 진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수험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소요 등으로 대학교 3학년 내내 1년 동안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뉘며 충분히 고찰하고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으로는 수험 기간이 매우 고달프고 외로운 만큼 왜 변리사에 진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동기 부여 및 이에 대해 고민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 공부 방법

공부 장소는 1차 준비 기간에는 집 근처 독서실에서 공부했고, 2차 준비 기간에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며 고시반에서 주로 공부했습니다. 본가에서 공부하는 경우, 주변에 비슷한 강도의 시험을 준비하는 다른 사람이 없는 만큼 타인으로 인한 자극을 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저녁은 수험 기간 중 스트레스와 외로움 해소에 효과적이었습니다. 고시반의 경우, 스터디를 구하기 용이하고 수험생이 주변에 많아 동기 부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자취로 신경 쓸 부분이(예를 들어, 식사) 많아져 공부시간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2차 때는 학원에 등원하고 싶어 자취를 하게 되었으나, 여러 사정 고려하여 공부장소를 선정하셨음 좋겠습니다.

변리사 시험은 상대평가의 시험이니만큼 남들이 쉬고 있을 때 한 공부의 양이 합격, 불합격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너무 지쳐 더 이상 한글자도 못보겠다는 심정이 아닌 한, 밥 먹을 때, 잠들기 직전, 샤워할 때 배운 내용을 리마인드하거나 머릿속으로 암기한 내용을 그려보곤 했습니다. 이 시간이 남들과 나의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했고, 효율 면에서도 짹짹 암기를 하는 것이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암기하는 것보다 이후에 더 기억에 남는 듯하다고 느꼈습니다.

### 3. 수강 과정

**민법(100):** 객관식 시험은 눈에 바르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민법은 민법총칙, 채권법, 물권법 간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다회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강의는 '이해'의 수단일 뿐 강의를 본다고 하여 '암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강의는 기본강의만 최소한으로 듣되, **복습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초반엔 한단어의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키워드를 체크하고 밑줄을 그으며 중요 파트를 체크하고, 밑줄 위주의 빠른 회독과 정독을 반복하였으며, 시험 전날에는 키워드만 보더라도 판례의 내용이 떠올라 키워드만으로 1회독 후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산업재산권법(95):** 특허의 경우, 기본강의만 들었습니다. 다만,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책을 구매하며 민법과 비슷하게 밑줄, 키워드 체크 후 다회독하였으며, 전날 키워드만 보면서 1회독 후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19/20)

상표의 경우, **법 과목 중 유일하게 판례 강의를 들은 과목**입니다. 기본강의에서는 상표의 법리만을 배우다보니 추상적이라 이해가 힘들었고 판례가 타과목에 비해 중요시되는 과목이며 2차 과목이기도 했으므로 판례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덕분에 올해 1차 시험에서는 판례 위주의 기출지문은 고민 없이 답을 고를 수 있었고, 2차 실전GS 수강하는 경우나 실제 시험에서도 도움이 되었어서 시간이 되신다면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0/10)

디자인의 경우, 기본강의를 듣고 조문 위주의 200페이지의 얇은 책을 다회독하였습니다. 특히, 상표와 비슷하나 다소 상이한 제도들이 많아 헛갈리므로, 스스로 표로 정리하여 얇은 책에 붙이고 함께 회독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특상디 기간기일 연장에서의 주체, 조약우선권 주장제도, 이익제도가 불인정될시 조치, 국제출원시 특례제도 등이 그러했습니다. 이 과정이 있어서 비슷한 3법간의 개념이 혼동없이 명확히 자리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9/20)

**자연과학개론(85)** : 물리는 수능 물리1 정도의 베이스가 있었고 방어과목이었어서 짧고 중요한 개념에 관한 인강만 듣고 기본 교재와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3회독 정도 풀었던 것 같습니다. (7/10) 화학의 경우, 전공과목이었기에 인강없이 기본서를 스스로 읽어가며 번시 기출문제와 객관식 문제집을 3회독 정도 풀었습니다. 물리와 화학 과목은 감이 중요해서 가늘고 길게 하루에 1-2시간씩 격일로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7/10) 생물과 지구과학은 각각 한달 정도는 기본인강을 듣고 하루에 4시간 이상씩 오랜 기간을 투자했습니다. 생물은 그 양이 많고 일생1,2의 베이스가 있었어서 모르거나 헛갈리는 부분 위주의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한달 이후에는 생물은 서브노트, 지구과학은 필기노트 위주(기본서도 3회독정도 회독)로 보았으며 두과목 모두 기출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각 노트에 적고 반복적으로 보아 노트의 회독만으로 기출문제 회독을 병행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따로 시간내지 않고 밥 먹을 때 잠깐씩 보았습니다. (10/10, 10/10)

**유기화학(66.6)** : 유기화학 기본강의를 1차 공부와 병행하였습니다. 주로 1학기 마친 후 1학기 정도 일요일 만나질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초반엔 투자할 시간도 없었고 대학에서 배운 내용은 다 잊어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1차 모의고사에서 안정적인 성적이 나온 뒤로는 유기화학에 투자할 시간이 확보되어 기본서 3-4회독, 맥머리 문제 전체 2회독 + 틀렸던 문제 1회독까지 1차와 병행하였습니다. 2차 초반에는 민소법으로 유기화학에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어서 5월이 돼서야 다시 기본서를 펴볼 수 있었습니다. 5월부터 시험 전까지는 매일 1시간씩 꾸준히 기본서+사례집을 풀었고, 6월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전 GS수업을 들었습니다. 선택과목도 한번쯤 GS수업을 들어 보는 것을 권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잊고 있었던 기본 유기화학 지식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답안 작성 방법, 시간 분배를 배울 수 있었던 시기여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61.33)** : 합격수기를 분석하게 되면 **대부분의 합격자들은 2차 시험에서 민소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민소법은 득점할 수 있는 최고 점수가 타법에 비해 크기 때문에 **민소법을 고득점한다면 합격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계속해서 접한 저도 2차 수험기간인 5개월의 대부분은 민사소송법에 투자한 것 같습니다.

민소법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민소법은 시간을 투자한만큼 점수가 잘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소법이 초반엔 양이 많고 절차법으로 생소하지만, 회독을 할수록 익숙해지면서 암기를 수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듣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3월에 작년 기본이론 강의(2주)와 사례 강의(2주)를 수강했습니다. 이틀치 분량으로 올라온 강의를 듣고, 그 부분을 복습하는 것을 하루 목표로 두었습니다.

2차 기간 중 작년강의를 듣는 것의 장단점은 장점으로는 강사님의 강의를 올라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강의를 수강하여 혼자 복습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추가된 최신판례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4주간의 강의를 2주내로 소화시킬 자신이 있으시다면 작년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약 1달), 최신판례는 GS나 교재만으로 어느정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기본서는 사례집과 암기노트 중 고민하다 암기노트로 선택했습니다. 통합민소는 5개월동안 회독수를 올릴 자신이 없었고, 사례집과 암기노트를 회독해보니 암기노트에 있으나 사례집에는 없는 내용이 많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험의 경우, 사례집과 실전GS를 잘 암기했다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위 쟁돌 문제 대비를 위해서는 통합민소(OR 암기노트)를 기본서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본서를 무엇으로 할지 여부는 책을 읽으며 각자 선택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암기는 문학판점 중 학설은 논거 위주로 외워되 학설명은 따로 암기하지 않았고, 판례는 전제, 논거, 결론 부분으로 나누어 그대로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검토의 경우에도 학설과 비슷하게 논거 위주로 암기했습니다. 판례는 두문자 암기를 최소화하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하려고 노력했고, 암기방법 중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잡자기 전 판례를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시험이 2달 정도 남았을 무렵 시도해봤던 방법인데, 공부 직후에는 분명 판례를 암기한 것 같으나 다음 회독시에 기억이 안나는 분께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하루 공부를 마치고 자기 전에 당일 공부한 부분의 책을 펼치고 목차를 보고 관련 판례를 그대로 중얼중얼 암기해보았습니다. 당시 저는 대다수의 판례들이 대강의 상황과 어떤 내용인지는 기억하나, 구조적으로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판례들은 반복적으로 암기될 때까지 머릿속으로 상기시켰습니다. 이처럼 자기 전에 판례만을 다시 암기해보는 과정은 이후 회독 시 해당 판례를 기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6월부터 7월에는 하루에 1개씩 GS를 쓸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타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GS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적은 민소법의 실전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허법(54):** 2차 기간동안 민소법에 전념하느라 특허와 상표에는 소홀했습니다. 특허법의 경우 3월과 4월에는 기본서 회독은 따로 못하였고, GS 강의만 수강하였습니다. 다만, 학원에 가는 날 오전 또는 그 전날엔 시간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관련 논점을 복습하였고, 학원에 다녀온 다음날에는 특상 GS를 복습하였습니다.

5월부터 준특허법으로 회독을 하였고, 강사님이 A급 논점으로 짚어 주신 부분과 최신 판례 위주로 먼저 공부했습니다. 5월 한달 동안은 교재 내용을 암기하는 것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5-7월까지 타교재는 안보고 준특허법으로만 공부하였습니다. A급 논점, 최신 판례 및 top 10 판례는 그대로 암기하려고 노력했고, B급 논점의 경우는 대충 요점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암기했습니다. C급 논점은 GS에 나온 논점을 제외하고는 읽지도 않았습니다.

5월, 6월 **비즈니스** 강사님이 아닌 타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고민이 많았습니다. 실전 GS를 암기하고자 하니, 준특허법에 있는 논점이지만 내용이 상이하여 이중으로 암기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전 GS를 읽고만 넘어가기엔 찝찝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제가 터득한 방법은 타강사님의 실전 GS를 수강하면서 답안의 논점만을 확인하고, 준특허법으로 해당 부분을 암기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니 GS 복습 시간을 줄임과 동시에 암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준특허법에 단권화하는 방법으로 실전 GS의 목차와 타강사님의 답안에서 암기하기 쉽거나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은 포스트잇에 써서 해당부분에 붙여 두었습니다. 또한 다른 합격자분의 수기를 보고 팁을 얻어 해당 논점이 나온 GS 부분을 간략하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강사님의 실전 GS 강의 2회차 문제1번의 설문(1)에 해당 논점이 나왔다면, 준특허법의 해당 논점 부분에 가서 왼쪽 상단에 '준실 2-1-(1)' 처럼 표시해두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논점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용이하고 문제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GS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처럼 기본서 회독이 부족하다면, 초반에 해당 논점을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다른 부분에 표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차 시험을 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판례집을 따로 보지 않아 사안에 판례를 대입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문제1번의 목시적 이전 판례의 경우, B급 논점으로서 어느정도 회독을 하였으나, 막상 시험에 나오자 설문의 사안에서 해당 판례가 쓰이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만일 저처럼 판례집을 볼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서의 판례 상황을 그려보면서 깊이 있게 회독한다면 위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표법(49):** 상표법의 경우, 3월에 **스승** 강사님의 기초 GS를 수강하였고, 4월에는 동강사님의 실전 GS를 수강하였습니다. 테마상표법을 주교재로 삼았으며, 시간이 부족하여 판례에 주로 나오는 개념을 위주로 회독하였습니다. 1차때 판례강의를 들은 것을 기초로 실전 GS에 임했으며, 그 외에 판례를 따로 공부하지 않다가 6-7월경에 테마판례집으로 최근 5개년 판례를 3회독하고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그 외 전반적인 복습방법이나 단권화 방식은 특허법과 같습니다.

## 4. 생활패턴 및 시간관리

### 1. 개인 성향

계획 무리하게 잡고 지키지 못하는 편이나 계획 무산 시 스트레스 받지 않음, 주변에 잘 휘둘리는 편 → 공부하는 사람 많은 곳을 선호함

### 2. 운동

- 진입 전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며 헬스, 학교 운동프로그램 수강함
- 진입 이후 공부 시간 확보를 위해 따로 운동 X, 다만 종종 30분씩 산책하거나 계단 걸어다니기(고시반 5층)로 스트레스를 해소함

### 3. 공부 패턴

- 1차 시험: 월~토 공부, 일요일은 주로 쉬거나 만나절은 학교 공부 OR 유기 공부
- 2차 시험: 쉬는 날 없이 공부

### 4. 과목별 공부시간

민:특:상:선 = 8:3:2:1

### 5. 공부 장소

- 1차 시험: 집 근처 독서실에서 인강 수강, 스터디 X
- 2차 시험: 학교 근처 자취, 고시반에서 공부하다가 코로나로 학교 근처 스터디카페에서 공부, 주말 역삼 학원, 7월에 쓰기 스터디 두세번

## 5. 시험 긴장해소 방법 및 응시 후기

긴장 해소방법으로는 시험 전에 ‘실수만 하지 말자.’ 고 암시하며 시험에 임했습니다. 민소법의 경우, 연습장에 ‘실수하지 말자, 문제 잘 읽자, 배점 분배 잘하자. “고 써놓고 시험 문제를 풀었습니다.

고사장 분위기는 생각보다 gs 같은 느낌이 강했습니다. 다만, 마지막 소문제는 남겨두었던 gs와 달리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법 문제4를 풀고 답을 내보니, 시간이 5분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 같았으나, 다행히 모든 문제를 풀고 답안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6. 나가며

동차 기간동안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올해 시험에 운이 좋아 아슬아슬하게 동차로 합격했고, 만일 누가 동차 합격에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다면, ‘운’ 과 합격에 대한 의심이 생겼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 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5개월 간 ‘이거 잘하면 되겠는데?’ 싶다가도 며칠 지나지 않아 ‘이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강사님께서 기초 GS에서 동차 기간동안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합격선에 다다를 수 있고, 이때 운이 따라준다면 합격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마음에 와닿은 말이었고 힘들 때마다 가슴 속에 새겼던 말이어서 공유하고 싶습니다.

또한, 동차 기간동안 법 과목을 어느 정도 잡아둬야 기득 때 안정적으로 합격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험 후 발표 전까지 내년 시험을 준비하면서 동차 때 공부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